

이정엽 개인전 <기억의 흔적>에 부처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흔히들 ‘머리속이 시끄럽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그렇다고 머리에 떠오르는 시끄러운 이미지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다. 아마 이러한 표현은 ‘지금 나에게 닥친 의외의 상황에 의하여 마음을 편히 할 수 없어서 이런 저런 해결책 등을 생각하는데, 주변에는 또 너무 많은 일상이 일상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 일상 속으로 놓아두기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을 간단히 표현한 것일 게다. 일상에 두기에는 나의 일상 공간이 여유롭지 못하여 바로 흘러보내지 못한 수많은 상황들은 내 무의식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순간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의식속으로 억압된 기억들이 외면화되어 자아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곱씹게 되는 것이다.

이정엽 작가의 전시 <기억의 흔적>은 인간의 모습에 대한 고찰이며 작가 스스로의 내면을 시각화하는 이미지들로 구성된다. 이때 작가가 이야기하는 ‘내면’은 알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따위의 추상적인 종류의 단어가 아니다. 작가는 ‘내면’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관계 맺어온 대상들에 관한 기억의 중첩’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기억들은 경험해 온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감정과 이미지들로 이루어져있을 것이고 이는 꽤 구체적일 터이다. 작가는 그러한 중첩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현재의 모습이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며 현재의 행동방식과 성격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의식 속에서의 억압이 드러나고 발현되는 모습이라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이정엽 작가가 그리는 이미지들은 그간 작가의 경험과 감정 등이 쌓여서 형성된 상상된 이미지들이다. 작가는 화면 속에서 그의 머리속을 맴도는 상상을 붙잡는다. 그것이 그냥 무의식속으로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기엔 마음이 편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각적인 구현 과정에서 점차 객관화된 대상이 되며 더 이상 작가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시야로 확인하는 구체화된 이미지로서 드러난다. 그것은 작가 나름대로 내면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인물의 표정, 행동, 배경, 의복 등 상상하고 있는 것을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내듯 섬세하고 일괄적인 톤으로 화면 위를 채워나가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작업 과정이 일종의 해소작용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지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고운 톤이다. 내용의 잔혹성과 비교하면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선의 흐름이며 산뜻한 색채들이다. 그것은 화면 속에서 들려오지 않는 날카로운 비명과는 반대되는 고요함을 만들어낸다.

이미지들은 잔혹하다. 신체를 향한 잔인하고 집요한 행위가 가해진다.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아마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혹은 망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행되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들, 보는 이의 몸 어딘가에 찌릿한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이정엽 작가의 이미지들은 마치 시각적인 이미지로서의 바라보는 작업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자극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잔혹성을 들여다본다. 신체의 분리, 절단, 훼손 등의 가혹한 이미지는 곧장 이를 그려낸 이에 대한 불안한 자아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곧장 상대방의 마음으로 향한다. 나에게 자극적인 통증을 주면서 내 안의 잔혹함과 불안감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이미지들은 객관화된 감정으로 떠내려가게 되는 경험을 준다.

일상에 놓이지 못한 의외의 사건과 감정들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 예술을 얼마나 유용한가. 예술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종류의 언어이다. 말로 정리되지 않

고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청각, 시각, 촉각 등 인간의 감각을 언어적 해석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여 동원되는 여러 감각적 기능을 통한 표현들이며 이것은 곧 예술이라는 분야로 취급되곤 한다. 이는 유용해 보이나 누구나 표현하기는 힘들다. 이 방면에 능숙한 이들은 예술가들이며 이들의 경탄할만한 표현방식을 통하여 의도하는 바를 느낄 수 있는 관객들이 존재하게 된다.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표현들을 관객이 이해한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이다. 이런 경이로움의 체험이 가능한 것은 아마 그토록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미지들은 잔인하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나는 단지 구체적인 표현을 모르고 있었을 뿐, 그 화면 앞에서 차갑지만 부드러운 색감들과 어우러진 차분하고 고요한 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은근한 쾌가 느껴질지도 모를 일이다.